

이주민 안식처 마하보디사 이전

스리랑카법당 10년만에 조계사 도움받아 보금자리 마련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수행도량인 마하보디사가 양주 광적면으로 법당을 이전했다.

마하보디사(주지 와치싸라)는 2005년 안산에서 월세로 시작해 이번 이전까지 3번 이전했다. 안산에서는 보문선원이 지원하고 와치싸라 스님이 운영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큰 부담이었다. 2007년 월세가 낮은 양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번에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문제였다. 늘 소곤소곤 말해야 했고,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야 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법당을 찾는 시간은 저녁 9~11시. 동네 주민들은 그들이 동네에 오는 것 자체를 불만스러워 했다. 당연히 법회도 보기 힘들었다.

와치싸라 스님과 이주노동자들은 법당을 찾아 편하게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 편히 걸어 다니고 주위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없는 공간을 늘 서원했다. 올봄, 조계사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 양주시 광춘면 효촌리에 전세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마하보디사는 11월 6~7일 이전 개원법회 및 카타나 치와라 다나 법회를 봉행했다. 개원 법회에는 300여 이주민들이 모였다.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카타나 치와라 다나 법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카타나 법회는 마치고 재가불자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봉헌하고 공양을 올리는 전통 법회다. 이 법회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법회라고 한다.

새로 이전한 마하보디사 주변에는 작은 공장이 있었다. 7일 마당에서는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트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도 연주했다. 그들에게 여유와 자유가 느껴졌다. 법당은 2층 건물이지만 30평이 채 되지 않은 공간이다. 직전에 있었던 아파트에 비하면 공간과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롭게 말하고 걸어 다니고,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4년간 마하보디사에서 한국어 자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에는 법계위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혜정·인환·지성·설정·종진·무관 스님 등 7명의 법계위원들이 대덕(비구) 50명과 혜덕(비구니) 32명 등 82명의 스님들에게 법계를 전했다.

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연옥 국제포교사는 와치싸라 스님을 보자마자 "탁 트인 주변환경과 더 이상 '씻' 이라며 조용히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좋네요"라며 축하했다.

법당은 이들에게 먼 타국에 와서 문화, 언어, 음식을 느낄 수 있는 의지처다. 또 법률, 여권 등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호자가 돼 주기도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님들께 비롯한 가정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국인 스님과 기도하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리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였다.

와산대(35)는 "스리랑카 생각날 때면 이곳에 온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지쳐있다가도 여기 오면 좋다"고 했다. 산자야(24)는 얼마 전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대도 가장 고마운 것은 스님이었다. 산자야는 "와치싸라 스님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직접 스리랑카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신다. 아플 때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입맛

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가안가(31)는 "한국에 스리랑카 절이 있어 좋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다가도 여기 오면 마음이 좋아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 한국 음식, 문화, 날씨 모두 적응이

되지 않았고, 말도 안 통해서 힘들 때 마하보디사는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스리랑카 스님인 난다 스님은 "와치싸라 스님 같은 사람은 없다. 나도 그저 조금씩 들고 있을 뿐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상연 기자 kemichino@gmail.com

와치싸라 스님 "갈 곳 없어 교회에 간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항상 언제 이런 공간이 생길까 하고 고민했다. 이제 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하면서 좋은 쉼터가 될 것 같다.

과거에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도 갈 곳이 없어 교회에 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쉬는 날 혼자서 기숙사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쉬는 주말까지 회사사람을 만나겠는가.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 때로는 출국하는 날까지도 한국에 스님이 있고,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도 부처님 오신 날 축제를 보고 서야 한국이 불교국가라는 것을 안다. 최근 신심 깊었던 청년이 교회에서 결혼 후에 집을 준다 하고 그만 개종을 하고 말았다.

이주노동자의 개종은 스리랑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들이 한국에서 개종을 하면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 모두 개종해야 한다. 가족들은 돈을 버는 가장의 종교를 따라가게 된다. 또 스리랑카의 불교문화까지도 뒤바뀌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올림'은 산업사회 그늘에 핀 연꽃

제16회 불교인권상 수상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지관, 이하 인권위)는 제16회 불교인권상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선정·시상했다.

인권위는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수상선정 이유를 "고도 산업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어루만지며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일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반올림'은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제작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암과 백혈병에 걸리는 원인을 전자제품 공정에 쓰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일터 제공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전자산업 노동과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건강 주권을 찾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또 피해노동자의 산재신청, 치료비후원, 전자산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도 펼쳐졌다. 인권관련 서적인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을 번역 출판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5명의 이야기를 담은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집필에 참여한 노동자 건강권이 깃발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반도체산업 작업 현

장의 위험성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도 알리는데 힘써왔다.

2010년 3월에는 '전자산업 피해노동자의 추모주간'을 진행하면서 미국, 대만, 홍콩 등에서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년 3~10월에는 '삼성의 직업병 책임 인정과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제공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 운동'을 벌여 7000여 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으로 1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들의 고통에 대해 아직도 삼성과 한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시상식에 대표로 참석한 이 활동가는 "수상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을 바꾸고,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개선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89701-01-479168 국민은행 김재천(삼성반도체대체위)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이상연 기자

평화재단 6주년 심포지엄 북핵문제 접근법 제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북핵문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평화재단은 11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이라는 안보 자산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당사국들이 직접 적절한 안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G20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낙관만 할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의 한반도에서 비롯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안정화에 필수인 북한 비핵화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윤여준 원장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청소년 자살예방 나선다

생명나눔, 내년부터 센터 운영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이 불교계 2011년 청소년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보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

생명나눔은 11월 12일 제27차 임시총회에서 신규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국역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지속 운영과 청소년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보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확정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 자살예방센터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보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의식 고취로 자살률을 줄여간다.

그밖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증대 △실기증자 저변확대 △홍보

역량 강화 △업무역량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의 활성화, 조직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 가족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생명나눔운동 활성화, 특별후원금, 환자돕기 후원금, 자비의 쌀 확대를 통한 재정의 활성화를 꾀한다.

2011년도 사업예산은 안국역 장기기증안내소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따라 2010년에 비해 37% 증액된 16억 789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밖에 장기 기증 희망자 모집을 활성화해 장기기증·조직기증 희망자 2500명 등록, 조형모세포기증희망등록 35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노인 미디어 심포지엄

서울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관(관장 가삼)은 11월 16일 3년간 진행해 온 서울노인영화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2회 노인 미디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선희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사무국장은 "노인들이 서울노인영화제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 홍보, 초청 등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참여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대 간 소통 기회를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창우 대중평론가는 "영화의 내용을 문제 해결의 의지와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을 맞추고, 제작주체를 노인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14주 과정 토요일 반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문화원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 2009년 3월 3일 <MBC-TV 특종 놀라운세상> 「귀신씨인 나무의 실제」편 출연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선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선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회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